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싫어한다

(사무엘상 6:1~18)

1.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일곱 달이라
2.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3.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4.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효대로 금 독종 다섯과 금 쥐 다섯 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5.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싫어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싫어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싫어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살아계심이 싫기 때문입니다.
어느 연극을 소개한 글을 보았습니다. 이혼할 부부에 관한 이야기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혼을 하게 된 심리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좋아서 만났고 서로의 꿈도 포기할 정도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 싫다. 잠자며 코고는 소리도 싫고 김치 씹는 소리도 싫고 심지어 숨소리도 싫고 저 사람이 내 옆에 살아있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는 못 산다고 여겨서 그림도 찢어서 나누고 접시도 쪼개서 나누는데 내가 갖고 싶어서가 아니고 저 사람에게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반으로 찢으면 그림이 망가지고 접시도 반으로 쪼개면 쓸 수 없게 됩니다. 온전한 그림이나 접시 하나라도 상대방이 가져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고 반으로 쪼개서 나누자는 겁니다. 이혼 조정자가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싫은 상태에서 부부가 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꿈까지도 포기할 정도로 좋아하고 사랑

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이제는 김치 씹는 소리도 싫고 숨소리도 싫고 내 옆에 그가 살아있는 사실 자체를 견딜 수 없어하는데 얼마든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배우자의 숨소리조차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혼으로 치닫는 부부관계의 결과가 종교적 차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태초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죄악 때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인간 세상에 인간의 생각 없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기쁨의 땅 에덴이었습니다. 인간 세상인데도 각자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판단과 생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옆집의 박씨 아저씨가 나와서 김씨 아저씨와 이야기를 해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하는 말이고 받아서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삶의 전형적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는 예수님의 생각이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생각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을 받아서 살았던 것일 뿐으로서 예수님의 생각이 나타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모두 각자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지금 70억의 인구가 있어도 70억 개의 다른 내용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서 70억에게는 70억 개의 생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하나님의 다른 70억 개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인격자들의 70억 개의 생각이 이 세상에 공존하며 부딪히며 갈등을 겪습니다.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내 옆에 누군가가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름대로의 판단과 의견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유전 죄를 가지고 태어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은 내 옆에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다른 존재를 견뎌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설득하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라 등의 별의별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유전 죄로 인한 본성 때문입니다.
내가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내 옆의 존재는 나름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려는 인격성이 죽어있어야 편합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자기의 인격성을 드러낼 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앞서 이혼한 부부가 자기 꿈까지 포기할 정도로 좋아하고 사랑했었다고 하는데, 이때에는 아직 인격성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과 좋아하는 감정으로 연애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면서 본격적으로 각자의 인격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숨소리가 지겹고 저 사람이 살아서 내 옆에 있는 것이 지겨운데 이것이 바로 유전 죄로 인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계속 다른 곳으로 보내지 못해서 안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정신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는 법궤를 전리품으로 취해서 다곤 신전에 두었을 때에는 얼마나 기뻤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벌어집니다. 독종이 생기고 재앙이 주어지고 다곤 신상은 목과 팔이 부러집니다. 아스돗의 다곤 신전에 두었던 법궤를 가드로 보내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재앙이 임하자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결국 블레셋은 견디지 못하고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내일 보겠습니다마는 법궤를 돌려받은 이스라엘에게서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법궤를 맞이했던 벧세메스 주민들이 법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임을 당하자, 블레셋이 그랬던 것처럼 기랏여아림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와의 동행이 이처럼 힘든 것일까요?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놓인 다곤 신전의 신상이 깨어졌을 때, 다곤 신이 가짜 신으로 드러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유일한 신으로 블레셋 앞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독종과 재앙도 이스라엘의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증거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법궤를 돌려보낼 때에 자신들이 당한 독종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서 법궤에 실어서 보내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셔서 이러한 일을 주관하셨는가를 알고 싶어서 일부러 젖이 나오는 암소 두 마리에게 끌게 하여 보냅니다. 그 암소의 송아지들을 집에 가두어 두고 암소 두 마리가 법궤를 실은 수레에 금 독종과 금 쥐 다섯을 실어서 끌게 하였습니다. 암소는 송아지에 대한 어미의 본능으로 송아지에게로 돌아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 돌아오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암소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어미 소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송아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계속 벧세메스로 걸어갔다는 것이고, 이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인됐으면 어떻게 하면 독종과 재앙을 거두시고 그분과 같이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죽어있는 다곤 신을 택하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법궤는 돌려보냅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획물로 가져왔던 법궤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법궤는 사랑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상징물로서 기쁨을 가져다주는 법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궤가 주어지자마자 진짜 신이 살아있음이 드러나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다곤 신은 죽은 신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기생 라합과 모압 여인 룻처럼 자기들의 죽은 신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좋은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어야 했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복술가와 다곤 신의 제사장까지 동원해서 그 법궤를 어떻게 치워버릴 것인가에 몰두하고 보내버립니다. 벧세메스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국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인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본능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못을 박으면 박힙니다. 그런데 유리에 박으면 유리가 깨집니다. 그냥 유리라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유리는 고체처럼 보이지만 고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체'란 분자의 결합된 상태가 규칙적이고 단단한 상태입니다. 이 분자의 결합구조가 느슨해지면 액체가 되는 것이고 더 느슨해지면 기체가 됩니다. 유리는 분자의 결합구조가 고체가 아닌 단단한 액체 상태이므로 깨지는 것입니다.
히4: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법궤 안에는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의 돌판'은 어떤 신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말한 적이 없기 때문이고, 또 말했다고 해도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고 의견과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분자의 결합구조가 고체가 될 수 없는 유리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견고하지 못해서 오늘 했던 생각이 내일 바뀝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마치 고체인 것처럼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오면 내 생각은 유리처럼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깨뜨리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가 서로의 숨소리까지 싫어할 만큼 지긋지긋해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아할 때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 같은 인격성이 강하게 주장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사랑할 때의 마음은 상대의 마음에 들어야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표현하기 보다는 그의 생각을 더 궁금해 하므로 서로가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의 의견이 나타나고 인격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인격성이 살아나게 되면 싫어집니다. 그 인격성의 표현을 받아들이면 내가 깨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돌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인격성의 증거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것은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이고, 그 분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제일 싫고 무서운 것입니다. 내 생각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벧전1:23~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과 꽃'은 '세세토록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되는 우

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풀과 꽃 같습니다. 고체 같지만 분자의 결합구조가 액체인 형체가 없는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에 못이 박힌 것은 우리의 고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액체 같은 생각, 영원하지 않고 정형화 될 수 없는 육체에 뿌리를 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주님이 죽으실 때 육체에 못이 박힌 것은 육체에 대해 마음이 죽으면 생각이 죽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생각이 떠오를까요? 우리가 육체로 보고 듣고 만지기 때문에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고체 같아 보여서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어야만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액체입니다. 영원한 고체로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견을 갖는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 생각과 계획과 소원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죽은 다곤 신을 선택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계셔서 내 모든 생의 순간에 대해 생각과 의견과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과 소원과 계획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죽은 신을 결합시킵니다. 죽은 신이어야만 내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그 뿌리를 보면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하고 판단하고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증거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깨지는 사건입니다. 내가 깨지고 싶지 않은 것은 나를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죽은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좋아하기 위해서는 고체처럼 보이지만 액체인 유리 같고, 풀과 꽃 같은 시간을 따라 없어지는 생각이 깨어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는 고체 같이 보이는 유리 같은 나의 생각들에 매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깨뜨려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뜨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셔 들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중심에 놓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의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십자가 생활화가 기독교 세계 안에서조차 막혀버린 이유는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유전 죄를 갖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과 판단과 소원과 계획이 나오는 모든 순간에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깨뜨려지는 삶을 실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